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없애는가



기고
안동현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지난달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됐다. 초등 수사를 맡은 경찰이 피의자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교롭게도 이걸 밝혀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바로 그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밀고 있다.

여당은 지난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몽땅 들어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넘긴 기록에 구멍이 보여도 검사가 매울 길이 사라진다.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혀낸 것도, 장애인 시설장의 추가 성범죄를 캐낸 것도 보완수사였다. 그 외 다양한 사례로 미루어볼 때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 제 손으로 증거를 모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러니 묻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이 검찰에 분노한 건 표적 수사였고

제 식구 감싸기였지, 강력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추는 일이 아니었다. 이 법안을 검찰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명분은 정치검찰을 잡자는 것인데, 실제로 잃는 쪽은 피해자다.

개정안에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제재 조항도 붙였다. 그래도 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못매우고 남에게 시켜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요구하고 기다리는 사이 사건은 흐려진다. 광주처럼 경찰 내부가 얽힌 사건이면 더하다. 유착을 의심받는 조직에 “다시 수사해보라”고 해서 진실이 나오리라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다.

이미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수사 지연과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혁의 속도에 묻혔다. 그 뒤 5년, 고소 사건 하나 처리에 1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됐다. 제도를 바꾼 쪽은 성과를 말하지만, 기다림의 비용은 사건 당사자들이 치렀다. 비슷한 우려가 있음에도 더 큰 규모로, 더 짧은 논의 끝에 추진하자는 것이 지금의 개정안이다.

개인만의 기우라면 좋겠다. 그런데 경고는 폐지를 주장해 온 쪽에서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의원을 앞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

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민변 설문에서도 회원 3명 중 2명이 남기자고 답했다. 법을 집행할 장관과 개혁을 외치는 단체가 나란히 머뭇거리는 법안이라면, 멈추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7월 17일 이전 처리’라는 민주당 내 일부의 자체적인 주장도 있었고, 전당대회 전에 끝내지는 말까지 나오며,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일인 8월 17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야당이 해야 할 것은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폐지에 맞서 대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싸웠으면 신중한 논의가 먼저라는 상식을 관철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견제다.

최소한 성범죄, 아동 학대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영역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한 없이 다시 논의하는 방법론도 나온다. 여당 안에서도 “결론을 정해놓은 숙의가 아니라 해법을 찾아가는 숙의”를 하자는 말이 나왔다.

정해진 날에 맞춰 통과시킨다고 법이 좋아지지 않는다. 입법이 할 일은 피해자가 나왔을 때 국가가 손쓸 방법을 남겨두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속도보다 진정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영화관 ‘피땀눈물’ 누가 보상하나



기자수첩
지시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매주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 담겨 있다. 내가 낸 티켓 값이 좋은 영화를 만든 제작진과 동네 극장의 내일을 지탱할 것이라는 믿음, 이른바 ‘문화적 가치 소비’다. 이 단단한 신뢰의 고리가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의 재무 위기로 인해 단번에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회생 절차에 돌입한 메가박스중앙이 배급사들에 공문을 보내 “6월 14일 이전 미지급 정산금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묶여 추후 변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부금 지급 동결 선언이다. 정산 구조상 당장 7월 중순부터 5월 상영작들의 대금이 막힌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국내 배급사들의 묶인 채권

만약 150억 원”이라며 “자금력이 없는 100여 개 중소 배급사들은 당장 월세와 직원 월급도 못 줄 처지”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메가박스 고유의 위탁상영관 구조가 폭탄을 키웠다. 위탁점 비중이 높은 메가박스 특성상, 본사 전산망을 공유하다 보니 통신사 할인이나 간편결제 대금이 본사에 묶여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관 비대위가 집계한 미수금만 70억~80억 원 선이다. 특히 법원이 ‘직영점’ 예매 대금과 신작 ‘토이스토리 5’의 부금 지급만 우선 허가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위탁관들의 분노가 빔발치고 있다.

영화계의 정산 시스템은 도미노식 구조다. 극장이 배급사에 돈을 주면 제작사, 홍보사를 거쳐 감독과 현장 스태프 임금, 기술 용역비로 청산된다. 극장 한 곳의 매비가 산업 전체의 율스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제작자협회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인연

대’는 성명을 통해 메가박스의 정산채권은 생태계의 목숨줄이 걸린 상거래 채권이라며, 영세 영화사와 위탁업자를 보호할 회생 절차 내 특별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법원과 채권단은 이 정산금을 일반 금융채권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법상 중소 협력업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하에 조기 변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베팅 끝에 몰린 소액 채권자들을 위한 신속한 구제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태도 역시 아쉽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민간 기업의 단순 잔혹사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관객 예치금 보호’ 같은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의 재무 실패가 왜 애꿎은 창작자들과 지역 위탁 극장의 회생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제는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공적 대응이 나와야 할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4일 (음 6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60년생** 일처리를 확실히 하세요. **72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84년생**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세요.



49년생 가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61년생**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73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85년생** 오늘 떠나는 여행은 너무나 길합니다.



50년생 미래를 생각해 일을 추진하세요. **62년생** 매사에 필요한 힘을 충분히 비축하세요. **74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에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흥함을 만끽합니다.



5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63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습니다. **87년생**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52년생 이성과 지혜를 모아 행동해야 합니다. **64년생** 현상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 보세요. **88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누구에게나 정직해야 합니다. **65년생** 놀자는 생각이 들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77년생** 헛된 행동은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89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4년생 뜻밖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언제나 정당한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90년생** 뜻밖의 이성관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55년생 지금까지 평안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하세요. **79년생** 평소보다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91년생** 지금의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됩니다. **68년생** 절실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0년생**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92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적당한 일 처리는 화를 부릅니다. **69년생**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1년생** 일에 있어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58년생 선불리 행동하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70년생**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길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94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59년생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소중한 귀인을 만납니다. **71년생** 금전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83년생** 조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모방이 공부

얼마 전 중국 병법 36계중 하나인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언급한 적이 있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자기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힘을 활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결국 모방의 묘를 느끼게 한다. ‘창작은 모방’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시심을 일깨우는 사람들도 있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들도 많다. 있는 현상과 상황에 대한 그 순간의 판단과 느낌을 누군가는 예술로 승화시키고 누군가는 마음이 깨어나서 자타이리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고 정적이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운명 탓으로 돌리고 만다. 운명과 숙명은 타고난 기운에 머물러 그치고 만다면 숙명이 된다.

애초의 타고난 에너지의 특성과 흐름을 알아서 이에 맞게 나아가고 머무르며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더욱 분발하여 좋은 기운은 발하게 하고 흉한 기운은 피하는 노력을 하여 피흉취길을 극대화하지는 것이 명리학의 목표다. 사실 말이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는 희안하게도 몸과 마음이 쳐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운기가 좋게 흐를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결과가 흡족하다. 맞는 얘기다. 전생부터의 쌓은 복과 업력대로만 살 때 일어나는 길흥의 흐름이 바로 내가 받아 태어난 코드인 사주팔자대로 살아지는 지도다. 인간은 산에도 길을 내고 터널을 뚫어 길을 단축하고 고생을 줄이지 않는가? 운명도 타고난 지도대로만 살면 숙명이 되고, 그 지도의 지형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 운명, 즉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선은 하심(下心)이다. 기도를 통한 발원도 하심의 또 하나의 실천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

문제풀이: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3	7		5	
	7							6	1
7		8		3		4			
4			3		7				
		1				5			
			8		9				4
		2		4		6			3
8	6							4	
1		3	4					5	7

2					1			8	7
8		9		6					
		8	2		9	5	4		
4		3				7			
	9							5	
		2				8			4
	8	7	4		3	1			
				5		4			3
1	4		3						8